

「王世子出宮圖」의 服飾 研究 II

— 服飾을 중심으로 —

한성대학교 이공대학 의류직물학과

교수 임재영

이화여자대학교 가정과학대학 의류직물학과

부교수 홍나영

안동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류학과

교수 이은주

目 次

I. 서론

II. 행사별 참여 인물과 복식

III. 의장·호위대의 복식

I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I. 서론

본 연구는 왕세자입학례 의례를 중심으로 고찰한 「王世子出宮圖」의 服飾 研究 I¹⁾의 후속 연구로서, 1817년 3월 甲寅일에 거행된 문조세자의 입학례 행사와 관련된 기록인 고려대학교 소장의 「王世子出宮圖」를 기본 자료로 왕세자출궁의에 관련된 복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왕세자의 입학의라는 것은 왕세자가 수업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어 학덕을 겸비한 스승을 만나 성군이 되기 위한 길을 닦기 위해 갖추는 중요한 의례이다. 공식적으로는 세자궁을 출발하는 出宮儀와 성균관 문묘에 제사드리는 酌獻禮, 박사 즉 스승에게 입학을 허락받는 과정의 往復儀, 입학

승락을 받고 스승에게 옷감과 술·안주를 올리는 脩幣儀, 그 후 講讀과 釋意를 행함으로써 실제적인 수업의 시작을 보여주는 入學儀,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날 종친 및 백관들의 축하를 받는 受賀儀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일련의 행사가 끝나면 축하의 의미로 慶科라는 과거시험을 치루게 되고 또한 왕이 치하하는 마무리 과정을 거쳐 전체적인 막을 내리게 된다.

입학의 공식적인 행사는 3월 길일에, 세자궁에서 출발하여 성균관의 문묘와 명륜당에서 치루어지고 다시 환궁한 후 행사 다음날 다시 正殿에서 종친·문무백관들의 하례를 받는 축하의까지의 이들간의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또 이 행사에는 세자궁의 시장원 관원들을 중심으로 익위사

1) 이은주·임재영·홍나영, 「王世子出宮圖」의 服飾研究 I, 『服飾』, 제28호, 1996: 169~186

선행연구의 내용 중 일부를 본고를 통해 수정하였기에 相異한 내용은 본고 참조를 바람.

특히 선행연구에서 (그림 13)과 (그림 14)의 그림이 서로 바뀌어 배치되었음을 수정함.

의 관원들이 동원되었고 소속 의장대, 興. 贊을 준비하는 司僕寺, 忠佐衛, 성균관의 관원 및 유생들 등 많은 인원이 참여하였다. 그 외에도 통례문 관원들, 承文院 관원들, 종친, 문무백관들까지 참여하는 비교적 큰 의식이었다.

왕세자 출궁도에 등장하는 인물은 각 행사도마다 중복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편의상 등장인물의 복식은 「出宮儀」의 의장·호위대의 복식과 그 외의 행사에 참여하는 인물의 복식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회화에 표현되지 않고 서문에만 기록된 왕세자의 복식은 물론이고 회화에 보이는 다른 등장 인물의 복식도 문헌자료를 참조하여 그 내용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II. 행사별 참여 인물과 복식

1. 왕세자

왕세자는 출궁도의 주인공이지만 조선시대의 다른 궁중행사를 그린 그림들과 마찬가지로 실제적인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않다. 그러므로 행사도에서 왕세자의 복식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관련 기록자료에는 행사마다의 복식이 명확하게 거론되어 있다. 특히 왕세자는 입학의 의례의 특수성과 행사의 주인공인 점에서 행사의 각 단계마다 복식을 달리 갖추고 있다. 행사의 각 단계마다 왕세자가 착용하는 복식은 다음과 같다.

(1) 출궁의 의복

출궁도의 서문과 이 행사를 기록한 『순조실록』에 보면 ‘세자가 쌍동계·공정책·곤룡포를 갖추고 수레에 올라 이극문을 나서 홍화문에 이르러²⁾

라고 되어 있어 상복을 입은 상태에서 출궁을 시작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국조오례의』에 왕세자가 문선왕께 작헌하고 입학하는 의식에 관한 절차에서의 출궁의식을 보면 왕세자가 익선관에 곤룡포를 입고 나온다.³⁾ 이러한 차이는 왕세자(문조)의 입학의가 관례 이전에 행해졌기 때문에⁴⁾ 『국조오례의』의 익선관 대신 공정책이 사용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관례 전·후 복식제도의 차이는 명종대에 세자로 책봉된 후 관례를 행하지 않았기에 익선관을 씌울 수 없어 논란이 된 기록에서도 엿볼 수 있다. 이 때는 중국의 기록에 의거하여 흥정진이 건의되었으나 이는 예관이 아니라 사사료이 거처할 때의 관모이기에 어려우니 우선 입자를 착용하도록 하였다⁵⁾고 한다. 이와 같이 관례전 왕세자의 관복이 규정된 바 없었으나 공정책의 제도는 현종대에 만들어져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현종 8년에 弘文館에서 아뢰기를, 『杜氏通典』과 『文獻通考』 등의 책을 상고해 보니, ‘皇太子가 관례하기 전에는 雙童髻·空頂黑介幘·雙玉導에 贊飾을 더한다’ 하였는데 그 제도는 이미 도형이 없어 尙方에서 『통전』과 『문헌통고』의 제도를 따라 만들도록 건의하였다⁶⁾는 기록이 있다. 『國朝續五禮儀補序例』에도 관례 전 章服이 쌍동계·쌍옥도·공정책⁷⁾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오례의가 제정된 성종대에는 관례전·후의 구별없이 익선관 제도였으나 중종 16년에 명나라에서 관례용으로 공정책을 가져왔으며⁸⁾ 현종 이후에는 세자 책봉 후 관례 초가전까지의 왕세자 상복용 관모로 국말까지 사용되었다.

王世子の 곤룡포는 명으로부터 사여되었다는 기록이 보이지 않아 조선조 초기 부터의 제도를

2) 『純祖實錄』卷二十七 年三月甲寅

3) 『國朝五禮儀』卷之一 吉禮

4) 출궁도의 주인공인 文祖世子는 이로부터 2年 후인 1819년에 嘉禮를 하였다.

5) 『明宗實錄』卷五十八 十二年八月庚子

6) 『顯宗實錄』卷十三 八年正月戊子

7) 『國朝續五禮儀補序例』卷之二 嘉禮

8) 『中宗實錄』卷四一 十六年正月乙卯

정확히 알기 어렵다. 그러나 明의 永樂禮制에 의한 곤룡포는 赤袍였으나⁹⁾ 성종 때 녹색으로 쓰던 것을 正色이 아니라고 하여 아청으로 바꾸었다¹⁰⁾는 기록이 있다. 中宗代에 ‘세자의 평상시 冠服을 鴉靑으로 하는데¹¹⁾’라는 기록으로 보아 조선 초기에는 녹색을 사용했으나 성종대 이후 바뀌어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현종 이후 숙종, 경종, 진종, 장조, 문조, 순종의 가례도감의궤에 보이는 왕세자의 곤룡포에도 모두 아청색이 사용되었다. 한편 英祖代의 『國朝續五禮儀補序例』의 왕세자 관례 전의 幘服制度에는 常服으로 흑곤룡포·수정대¹²⁾가 기록되어 있다. 이 때의 흑색 역시 아청색을 말하는 것¹³⁾으로 이미 밝혀진 바 있다.

(2) 작헌례 및 입학의의 복식.

‘酌獻禮時至 世子改具學生服…入學時至 世子仍具學生服’이라는 『왕세자출궁도』 서문의 기록에 의하면 세자는 학생복을 입고 입학 관련 행사를 치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생복이라 함은 『경국대전』에서 諸學生徒의 冠服으로 緇布巾(學內用)·團領(儒學用 靑衫)·條兒¹⁴⁾로 되어 있으나, 『국조오례의』에는 작헌례 때 학생은 靑衿服을 입는다¹⁵⁾고 되어 있다. 정조대에 편찬된 『태학지』에 따르면 왕세자는 유생복인 ‘軟巾·靑紗後垂靑衿服에 細稽帶·勒帛·黑靴(상의원 진배)’를 착용하고, 생원·진사는 ‘軟巾·後垂靑衫袍·黑靴子’를 착용한다고 기록되어 있다.¹⁶⁾ 이처럼 왕세자가 다른 유생과 동일한 복식을 착용한다는 것을 통해

성균관 학생으로의 왕세자의 지위를 확인할 수 있다. 학생복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 항에서 다루기로 한다.

(3) 수하의의 복식

왕세자출궁도의 서문에 의하면 왕세자가 종친 및 백관들의 축하를 받는 「수하의」에서 遠遊冠·絳紗袍를 입는다고 기록되어 있다. 세종 8년에는 세자의 관이 오랑관이었으나 동왕 10년 12월에 명으로부터 6량관을 사여받았고¹⁷⁾ 다시 동왕 28년 8월에는 세자의 원유관과 강사포를 사여받았다.¹⁸⁾ 이후 왕세자의 관은 원유관이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구한말 고종 황제 등극후에 사용된 황태자의 원유관이 유물로 남아 있다.

2. 제관·집사관

왕세자 입학례 행사에 참여하는 대표적인 인물로 제관·집사관이 있다. 제관·집사관은 성균관 문묘 대성전에서 작헌례를 올리는 모습인 「酌獻禮」, 명륜당에서 유생 작명자가 왕복하면서 세자의 입학 뜻을 박사에게 알리는 「往復儀」, 왕세자가 수패를 박사에게 올리는 「脩幣儀」의 행사에 관여되는 인물이다.

왕세자 酌獻의 齊官으로 弼善·從官 4人(侍講院 官員)·執事者(學生)·博士(成均館 知事)·將命者(學生)·軟事者 9人(學生)이 있으며 박사 이하는 入學執事로 한다.¹⁹⁾ 또한 入學儀의 執事官은 博士(成均館知事), 將命者 1人(學生), 執事者 6인

9) 柳喜卿, 『한국복식사연구』, 서울: 梨花女子大學校 出版部, 1975: 297

10) 『成宗實錄』 卷二百四十九年三月乙酉

11) 劉頌玉, 『朝鮮王朝宮中儀軌服飾』, 서울: 修學社, 1992: 151

12) 『國祖續五禮儀補序例』 卷之二 嘉禮

13) 이은주, ‘한국전통복색에서의 청색과 흑색: 청색의 범주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역류학회지, 제18권 1호, 1994: 121~129

14) 『經國大典』 卷之三 禮典 儀章

15) 『國祖五禮儀』 卷之一 吉禮

16) 梁大淵(편저), 『新編 太學志』, 서울: 중앙논판신문사, 1960: 89~90

17) 『世宗實錄』 卷四十二 十年十二月甲申

18) 『世宗實錄』 卷百十三 28年 8月 壬戌

19) 『國祖五禮儀序例』 卷之一 吉禮 齊官

(學生)으로 구성되어 있다.²⁰⁾ 이 외에도 문묘와 성균관에 本官으로 봉직하는 관원, 행사 참관 및 축하 인사로서 성균관 학생, 백관 등이 출궁도에 다수 등장한다.

제관·집사관은 특별히 주시되는 박사 외에는 학생, 시강원 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제관·집사관은 아니나 행사에 관여하며 행사를 돕는 인물로 성균관 관원이 있다. 따라서 일의 성격상 본장에서 함께 다루어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되어 박사, 학생, 성균관 관원으로 대별하여 복식을 살펴 보고자 한다. 다만 제관인 필선·종관 등의 시강원 관원은 그 복식이 사모·흑단령으로 문무백관의 사모·흑단령과 동일하게 나타나므로 문무백관의 복식에서 일괄하여 다루기로 한다.

(1) 박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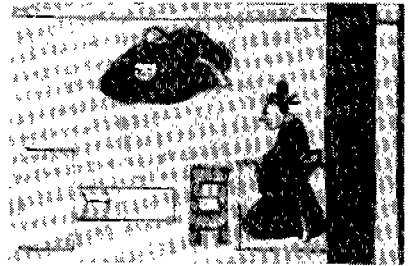
博士인 성균관지사는 정2품으로 왕세자 입학에 관한 일정이 결정되면 곧 임명된다. 3월 乙卯일에 입학의를 행할 것을 正月에 결정²¹⁾한 후 2월에 아직까지 대제학 차출을 하지 않았음을 체근하여 그 이튿날 南公轍을 홍문관 대제학, 예문관 대제학으로 임명했다.²²⁾ 성균관지사는 他官司의 官員으로 겸임하게 되어 있어²³⁾ 대제학이 박사를 맡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박사는 왕세자 師傅로서 성균관에서 입학의를 치르는 동안인 왕복의와 수폐의 때에 公服을 입는다고 되어 있으며 堂에 올라가 소학을 읽고 해석할 때 즉, 입학의에서는 常服을 입는다.²⁴⁾ (그림 1)은 「수폐의」에서 박사가 공복을 입은 모습이고 (그림 2)는 「입학의」에서 상복을 입은 모습이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2품이하 정3품 이상의 공



(그림 1) 박사의 공복
(수폐의 : 오른쪽에 서 있는 인물)



(그림 2) 박사의 상복
(입학의 : 무릎 꿇고 앉아 있는 인물)

복은 幘頭·紅袍·荔枝金帶·象笏²⁵⁾이며, 「왕복의」와 「수폐의」에서는 복두와 홍포, 也字帶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야자대는 帶를 띠었을 때, 帶의 끝이 아래로 늘어져 ‘也’자 처럼 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인데 백관의 공복용 대 이외에도 舞童의 舞服의 帶로도 사용되었다.²⁶⁾ 『영조정순후가례도감의궤』에 正使, 副使의 公服으로 紅方紗紬의 衣次와 冒羅幘頭·也字犀帶·黑靴子²⁷⁾가 보이는 반면, 그 이후 『헌종가례도감의궤』, 『철종철인후가례도감의궤』, 『고종명성후가례도감의궤』의 정사, 부사의 공복 제도에 역시 같은 복식제도가 나타나지만 홍방사주의 의차와 모라복두만이 보이고 대는 따로이 명시된 바가 없다.²⁸⁾ 그러므로 계속해서 시행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다.

20) 전계서, 卷之一 嘉禮 執事官
 21) 『純祖實錄』 卷二十 十七年 一月 乙巳
 22) 앞 글 二月
 23) 『經國大典』 上 成均館
 24) 『純祖實錄』 卷二十 十七年 三月 甲寅
 25) 『經國大典』 卷之三 禮典
 26) 『樂學軌範』 卷之九 冠服圖說
 27) 유송욱, 『朝鮮時代 儀軌圖의 服飾研究』,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미간행), 1986 : 111
 28) 전계서

다만 일반적으로 조선후기에 공복제도가 헤이해져 복두는 어느 때부터인가 백관 공복에서 그 자취를 감추고 사모가 공·상복에 통용하게 된 것으로 보았던 이제까지의 견해는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조선조 말기에 해당하는 순조대에도 복두가 그대로 존재한 것이 이 『출궁도』에서 입증되었다. 또한 국초의 공복 제도는 임진난 이후 회복되지 않아서 급제자가 及第의 방에 응할 때나 세자의 입학시에만 박사가 입었다²⁹⁾고 하니 드물게 확인할 수 있는 예라고 생각된다.

또한 조선시대 중·후기의 문헌기록에 공복에 관해 언급한 부분을 찾을 수 있다. 즉 『大東野承』의 「甲辰漫錄」³⁰⁾에는 경자·신축년(1600~1601) 간에 복색을 다시 담홍색을 입었고, 얼마 후 조복, 제복, 시복은 모두 복구가 되었는데 공복은 복구되지 않았으나 새로 급제한 사람은 입었다는 기록을 볼 수 있고 『星湖僊說』³¹⁾에는 ‘공복은 복구되지 않고 공복이 사용될 곳에 時服이 사용되었다’는 기록도 있다. 그러나 『출궁도』의 내용과 부합되는 기록을 『燃藜室記述』³²⁾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즉 ‘공복은 임진난 이후 완전히 회복되지는 못하였지만, 及第의 榜目に 응할 때에 입었고 또 병자호란 이후 다시 관대가 회복되면서 세자가 입학할 때에 박사가 입었다’고 한다. 또한 조선 통신사가 일본국에 오가는 동안의 행사에 공복을 착용했음도 확인할 수 있다.³³⁾ 따라서 공복이 조선조 후기에도 사용되었는 바, 특별한 행사에는 공복을 착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순조실록』에서는 박사가 常服을 입고 당에 올라간다고 기록하였고 『출궁도』 서문에서는 흑단령으로 갈아 입고 당에 올라간다고 하였으니 이는 상복을 흑단령으로 지칭했음을 말해준다. (그림 2)에서 보이는 「입학의」의 장면 중에 당에 올라

앉아 경서를 읽는 듯한 모습에서 사모와 흑단령을 착용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흥배 문양은 정확히 보이지는 않지만 박사가 문관 정2품이기 때문에 『속대전』에 의거하여 윤학 흥배를 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續大典』에 상복은 당상·당하 모두 현록포로 되어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도 흑단령이라는 표현이 아닌 현록색의 단령이나 상복이란 표현으로 나타났어야 된다. 그러나 현록포가 실제로 검게 보이기 때문에 그 명칭을 흑단령으로 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학생

왕세자 출궁도에는 실제적인 입학 관계 행사인 「작헌례」, 「왕복의」, 「수폐의」, 「입학의」에서 실제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학생의 모습과 참관인으로의 모습에서 다수의 학생들이 나타난다. 특히 왕세자가 성균관에 입학할 때 학생들은 작헌례 및 입학의에 집사자와 장명자로서 의식의 진행상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앞서 왕세자의 학생복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작헌례시 집사자와 학생은 청금복을 입고 모두 門外位에 나아간다는 『국조오례의』의 기록을 통해 학생복으로 청금복이 입혀졌던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서문에도 왕세자가 성균관에 이르면 廟司는 흑단령, 儒生은 청금복으로서 왕세자를 맞이한다는 설명이 있다. 『태학지』의 왕세자의 後垂 古袴服과 생원·진사의 後垂 靑衫袍에서 말하는 ‘후수(後垂)’란 도포의 뒷자락이 내려온 모양을 지칭한 것으로 생각되며 그림으로도 확인 된다(그림 3). 또한 명칭은 청금포, 청삼포 등 다양하게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 초의 유생복은 본래 난삼 형태였다고 하나 출궁도에는 이러한 포는 보이지

29) 『燃藜室記述』別集 卷之十三 政教典故 ‘…皆着公服 而壬辰後仍廢不復 惟新及第應榜服之 丙子兵後…公服則世子入學時博士服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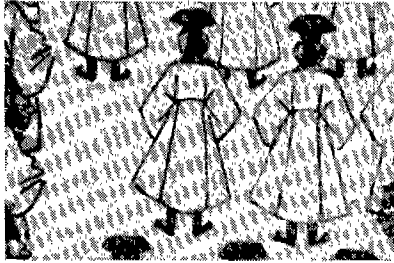
30) 『大東野承』甲辰漫錄 卷之五十五

31) 李翼, 『星湖僊說』卷之十五 人事門 壬辰亂 前後 公服

32) 『燃藜室記述』別集 卷之十三 政教典故

33) 李京子·弓民峯, 『朝鮮 通信使 服飾의 一研究』, 『服飾』, 第7號, 韓國服飾學會, 1983 : 91~93

얇고 도포 모양의 포만 보이며 이것이 청금포(청삼포)를 지칭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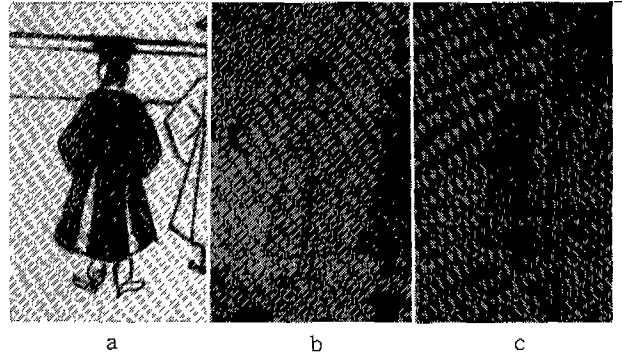
(그림 3) 도포를 입은 유생(작헌례)

(그림 1)의 紵布·酒壺·脩案을 들고 있는 집사 자들과 (그림 3)의 참관 학생들 및 곳곳에서 학생으로 보이는 인물은 유건·도포에 靴를 신고 있다. 『芝峯類說』에 ‘지금은 유생이 朝官의 모양과 같이 화를 신고 말을 타니, 걷는 자가 없다. 평소에 어른이라 할지라도 行纏을 치고 직령의를 입었는데 지금은 젊은 자라도 도포를 입고 행전과 分套를 하지 않는다.’³⁴⁾라고 하는데 본 입학례가 행해진 순조대에도 유생들 사이에 도포와 화의 착용이 일반화되어 있었음을 그림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문헌상의 제도와 실제 착용례가 달랐던 시대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해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왜 명칭만 남아 있고 명칭과 다른 옷이 착용되었는지 이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논하고자 한다. 또 한가지 의문은 포의 색상에 관한 것으로 실제로 푸른색과 붉은색 계열로 나타나는데 문헌기록으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3) 성균관 관원

『출궁도』에는 직령포를 입은 인물이 다양하게 보이는데 직령이라 하는 것은 단령과 같은 구조이나 깃만 곧은 깃인 포를 칭한다. 행사 참여 인물 중 직령 착용자는 작헌례의 홍색빛을 띤 직령·평정건(그림 4의 a), 왕복의의 분홍빛을 띤 직령·유건(그림 4의 b), 입학의의 갈색빛을 띤 직령·평정건(그림 4의 c)이다.³⁵⁾ 이들은 행사를 돕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성균관 관원으로 생각된다.



(그림 4) 성균관 관원

3. 문무백관

행사에 참여한 문무백관은 제관인 시강원 관원 외에는 행사 참관 및 입학 축하인사자로서의 인물이 대부분이다.

『출궁도』의 서문에 의하면 궁관들이 때에 맞추어 모이는데 각각 자기에게 맞는 복장을 한다 하면서 문관은 흑단령, 무관은 器服이라고 되어 있다. 기복은 융복이며 따라서 문관은 상복, 무관은 융복을 갖추어 입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별감 이외에 융복을 착용한 인물은 보이지 않으며 특히 왕세자가 문무백관의 하례를 받는 『受賀儀』(그림 5)에서 보이는 백관의 모습은 모두 흑단령이며 흉배도 한결같이 새 한마리가 날고 있는 문양이다.

조선 후기의 흉배제도는 당상·당하의 제도가 문란해져 계급이 혼동되었고 또 대전에는 등급이 많아 번거러웠기에 영조 20년에 문관 당상은 ‘鶴’ 흉배, 당하는 ‘鷗’흉배를 사용하도록³⁶⁾ 『속대전』에 기록되었으며 무관용은 『경국대전』과 변함이 없이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출궁도에 묘사된 현상은 단지 흉배가 있다는 의미에서 일률적으로 새 한 마리만 그린 것

34) 李陞光, 『芝峯類說』卷三 君道

35) 각 행사에서 보이는 직령의 색은 채색 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도 있다.

36) 『英祖實錄』卷六十二 二十年 八月 己酉

이라고 볼 수 있지만 흥배제도의 혼란으로 무관이 문관의 흥배를 즐겨 사용했던 현상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그림 5) 백관의 상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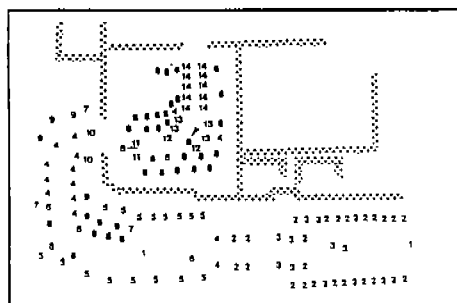
Ⅲ. 의장 · 호위대의 복식

출궁도의 왕세자 출궁 의장에는 대열의 앞부분에서 의장을 받들고 가는 의장수와 그 뒤로 왕세자를 호위하는 호위 대열이 있다. 이러한 『출궁의』에 나타난 왕세자 의장은 왕의 의장에 비해 간소한 모습인데 이는 국가의 대례인 가례와는 달리 왕세자 성균관 입학에 대한 행사를 기록한 것이기에 그 규모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즉 의장이 많이 등장하는 가례도감의궤의 경우 처럼 행렬의 전후에서 등장하는 경우와는 달리 앞 부분에만 의장대열이 등장한다. 이러한 왕세자의 의장은 정조대에 편찬된 것으로 추정되는 규장각 소장본 의장반차도³⁷⁾와 비교해 볼 때 금등자·은등자 1열 만을 제외하고는 거의 동일한 모습에서도 확인된다.

본 장에서는 의장수와 印馬를 끌고 가는 인물 및 그 뒤에서 출궁행렬에 참가하는 인물들의 복식을 다루고자 한다. 등장하는 각 인물들의 복식 유형에 따른 인물 배치는 (그림 6)³⁸⁾과 같다.

1. 피모자 · 흥의

紅衣와 皮帽子는 旗幟와 儀物을 들고 가는 인물



(그림 6) 고려대 소장본 「출궁도」의 인물배치도



(그림 7) 피모자 · 흥의

들(그림 7)에서 보여지며, 대열 앞 부분인 양쪽 기수, 가운데 印馬隊 사이의 기치를 든 2인, 북과 징을 든 2인, 蓋를 들고 가는 2인이 이에 해당된다 (그림 6/유형2).

이러한 인물들의 복식제도는 『국조오례의』와 입학의 2년 뒤 가례시에 나타나는 의장수의 복식과는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표 1>은 『국조오례의』, <표 2>는 왕세자출궁도에 나타난 의장대 복식의 비교이다.

『국조오례의』는 조선 전기의 기록이므로 출궁도를 그린 순조대와는 연대 차이가 있어, 그 동안 조선중·후기의 복식제도 변화 속에서 변모했으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출궁도가 2년 후에 거행된 문조세자 가례도감의궤도에 나타난 사실과도 다르다는 점에서 하나는 입학의에 관한 의

37) 『儀仗班次圖』 王世子儀仗

38) “『王世子出宮圖』의 服飾研究 I”에서 다른 복식 유형으로 분류한 12와 13은 같은 유형으로 볼이 타당하다고 본다.

<표 1> 『국오조례』의 왕세자의장

인 물	역 할	복 식	
의 장	麒麟旗2(좌·우)·白澤旗2(좌·우)	皮帽子·青衣	
익위사 서리(2인)	중앙에 印馬를 扶持함.	—	
인로(8인)	—	皂巾·青衣	
익위사 관원	뒤따라 감.	—	
의 장	玄鶴旗1(좌)·白鶴旗1(우)·鎧·刀·瓜·扇·旌·旒·令字旗·豹骨朶子(좌)·熊骨朶子(우)·令字旗2(좌·우)·銀鎧2·金鎧2·銀粧刀(좌)·金粧刀(우)·金(좌)·鼓(우) 駕龜仙人旗 2(중앙 좌·우)	皮帽子·紅衣	
	闕幽馬 2필(중앙 좌·우)	摠色笠·青衣	
	金立瓜(좌)·銀立瓜(우)·旒節(좌·우)·旌(좌·우)·雀扇(좌2·우2)·繖·青扇·青蓋(중앙 좌·우)	皂巾·青衣	
사벽(16員)	烏杖(좌·우)	常服	
별감(10인)	중앙에 좌우로 나누어 섬.	皂巾·黑衣	
	청양산1(중앙)		
충찬위(16원)	뒤를 이음	常服	
—	上馬臺를 1인이 받듦.	黑笠·青衣	
(60인)	왕세자 轎을 받듦	皂巾·青衣·鶴蹠·紅帶·青行膝·雲鞋	
사복시 관원(4원)	왕세자를 좌우에서 모심	常服	
시종관	좌·우 익위	갈을 차고 왕세자 배위함	—
	좌·우 사어	궁시를 구비하고 왕세자 배위함	—
충찬위	衣襟을 받듦.	—	
시강원·익위사 관원	행렬로 행진하면서 시위한다.	常服	

<표 2> 「출궁의」 관련 인물

인 물(품 계)	所屬衙門	역 할	복 식
王世子	—	입학례의 장본인	쌍동계·공정책·곤룡포
僉正(從4品)	司僕寺	輿·轎 차비	—
胥吏	司僕寺	印馬 扶持	황초립·황의
禮貌官(兼輔德·從3品)	世子侍講院	왕세자 좌측 보필	사모·흑단령
侍講院官員들(궁관)	世子侍講院	의장대 뒤 따름	상복(사모·흑단령)
左·右 司禦(從5品)	世子翊衛司	陪衛之官(弓矢를 갖추)	흑립·청철릭
左·右 翊衛(正5品)	世子翊衛司	陪衛之官(雲劔을 갖추)	사모·흑단령
翊贊(正6品)	世子翊衛司	印을 지고 감	사모·흑단령
익위사 관원들	世子翊衛司	중앙에 좌우 행렬	흑립·철릭·궁시, 초립·홍철릭
의장대 및 차비	世子翊衛司·忠佐衛 外	의장들·언월도·장·烏銃·왕세자輿·繖扇 差備	피모자·홍의 흑립·청철릭 사모·흑단령 전립·창의·더그레 청모자·창의·더그레 청모자·창의·전복 지모·홍적령

때, 또 다른 하나는 가례라고 하는 행사의 성격차이로 생각해 볼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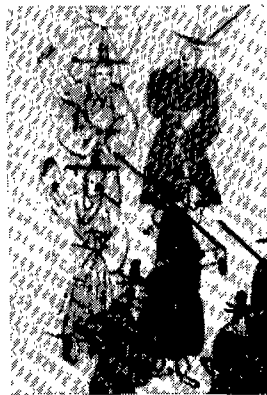
착용 복식은 피모자·홍의·청색 행전의 모습이다. 홍의의 형태는 깃의 모습은 정면의 모습이 보이지 않기에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직령이었을 것이며, 무없이 양옆이 트였고 소매는 좁다. 이는 아마도 창의의 형태일 것으로 생각된다. 모자는 청색으로, 위로 반듯하게 서있는 모습으로서 건의 형태라기보다는 명칭이 주는 바와 같이 고깔형의 모자로서 『국조오례의』에 기록된 피모자로 생각된다.

2. 황초립·황의

양쪽으로 배열된 의장수 가운데로 華鬘으로 덮은烙印을 찍은 마필을 양쪽에서 扶持하는 2인의 翊衛司 耨吏가 있으며, 또한 그 뒤를 따르는 안장을 갖춘 궐달마 2필을 끄는 4인이 있다(그림 6/유형3). 이들은 모두 黃草笠에 黃衣를 입고 있으며, 무없이 양 옆이 트인 형태로 홍의와 동일한 포이다(그림 8). 그러나 『동가도』에서 서리는 일반적으로 단령에 평정건을 착용한 것으로 나타나며,³⁹⁾ 『국조오례의』 왕세자 의장에서는 청의·조건으로



(그림 8) 황초립·황의



(그림 9) 황초립·홍철릭·조총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궐달마 2인은 청의·홍색 립·운혜로 기록되어 있어 『출궁도』와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⁴⁰⁾

3. 황초립·홍철릭

출궁의 의장대 뒤를 따르는 호위대 중간에 보이는(그림 6/유형9) 황초립·홍철릭·조총의 인물(그림 9)은 「국조오례의」 왕세자의장에 사벽 16원이 상복을 입고 오장을 짊고 좌우로 나누어 선다고 기록된 사벽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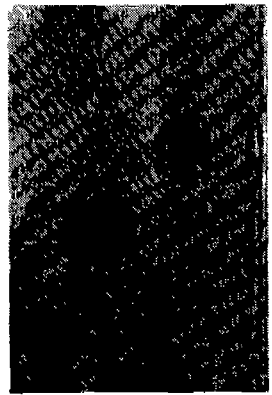
4. 흑립·청철릭

흑립에 철릭을 착용한 인물은 출궁의에서 3부류로 나타난다(그림 6/유형4). 의장대 뒷부분의 월도를 든 인물 4인 중 2인(그림 10-a)과 호위대 중간부분의 궁시와 동개를 찬 별감(그림 9) 그리고 輿 앞 부분의 궁시, 동개를 찬 2인의 左·右司禦이다(그림 10-b). 司禦는 翊衛와 함께 세자 시강원 소속으로 왕세자의 좌우에서 호위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별감은 액정서에 소속된 관원으로 왕, 세자의



a



b

(그림 10) 흑립·청철릭

39) 앞글, 卷之3 禮典 儀章, 李京子, 『韓國服飾史論』 서울: 一志社, 1983: 219.

40) 『國朝五禮儀』 卷之三 嘉禮

행차시 御駕 옆을 시위한다. 별감의 복식은 『국조오례의』에 10인이 다 흑의에 흑건을 쓰고 중앙에서 좌우로 나누어 선다고 되어 있으나, 「출궁도」에는 10인이 음복차림으로 청철릭에 동개, 활을 메고 흑립을 쓴 모습이다. 이는 이들이 비록 품관이 낮은 잡직이었으나 궁중의 대소 행사에 쓰이므로 그 복식이 화려했고 왕과 세자를 시위하는 직책이었던 만큼 그 威儀는 당당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속대전』에 의하면 왕의 교외동가시 황초립·홍철릭⁴¹⁾으로 되어 있으며 이러한 모습은 주인공 세자의 「가례도감의궤」에도 나타난다. 이는 「출궁도」와는 다른 모습이다. 따라서 앞서 논한 황초립·홍철릭·조총⁴²⁾의 사벽을 별감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5. 사모 · 흑단령

의장수 뒤에 보이는 耄를 들고 가는 1인(그림 11-a), 호위대의 맨 뒷부분에 日傘을 든 1인과 扇을 든 2인(그림 11-b)은 모두 흉배를 하지 않은 단령에 사모를 쓴 모습이다. 포의 색은 백관과 같은 현록색이다.⁴³⁾

이러한 사모 · 흑단령의 모습은 충찬위, 사복시

관원, 시종관, 시강원, 의위사 관원과 같은 관원들에게도 보여진다(그림 11-c). 특히 철릭에 궁시를 찬 左·右司禦 뒤에 흑단령을 입고 운검을 찬 左·右翊衛 2인의 모습은 「출궁의」에서는 자세히 나타나지 않으나 「수폐의」에서는 그 모습이 확실히 보인다(그림 11-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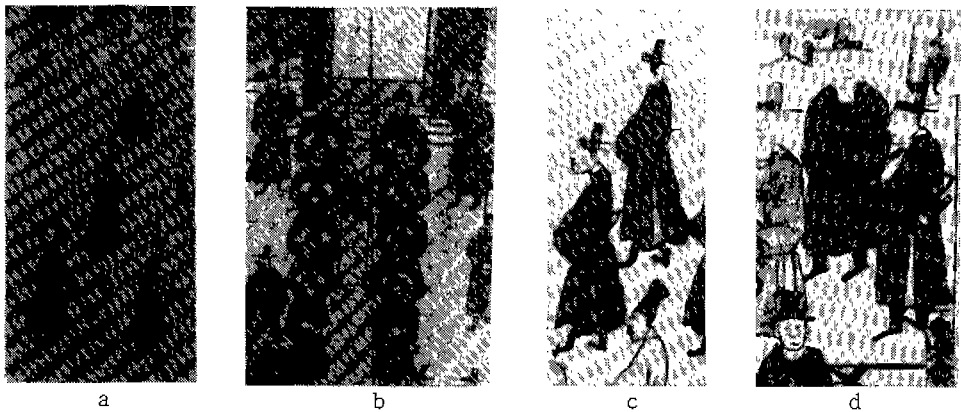
6. 지모 · 홍직령

왕세자 輿을 메는 인물(그림 6/유형14)로서, 『국조오례의』에는 청의를 입고 조건·학창⁴⁴⁾·홍대·청행전·운혜를 착용한다고 했지만 「출궁도」에는 지모·홍직령·백행전의 모습이다(그림 11-b).

7. 전립 · 창의 · 더그레(號衣)

「출궁의」에서 전립·창의를 입고 있는 인물은 3부류가 나타난다. 의장대 처음과 후반부의 근장군사(그림 6/유형1, 그림 12-a)와 호위대 중간 부분에 궁시를 멘 인물(그림 6/유형10, 그림 12-b), 輿 앞부분의 인물(그림 6/유형13, 그림 12-c)이다.

근장군사는 궁궐을 지키고 거동때 경호하는 일



(그림 11) 사모 · 흑단령

41) 『續大典』 禮典 儀章

42) 李京子, 앞책, 1983 : 257.

43) 장서각 소장화첩에서는 색이 더 열게 채색되어 있다.

44) 문헌에 ‘학창’으로만 기록되어 있다. 이는 ‘학창의’와 다른 옷이다.

을 맡은 병조의 군사로서 「출궁의」 의장행렬의 앞과 중간 부분에 씩씩하게 걸어가는 모습으로 등장한다. 이러한 모습은 『한양가』에도 ‘가죽 등채 손에 쥐고 이리 뛰며 저리 뛰니 기상이 호륙하다’⁴⁵⁾ 라는 모습으로 묘사되어 근장군사가 의장대열에서 매우 인상적인 모습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손에 등채를 쥐고 창의로 보이는 좁은 소매의 원포에 양옆과 뒷중심의 허리 이하가 터진 청색의 더그레를 입고 있으며 전립을 썼다. 『국조오례의』에는 등장하지 않으나 『가례도감의궤』중 후기에 속하는 『의궤』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조선후기에 새로이 등장하는 인물임을 알 수 있다.

궁시를 든 인물은 전립에 상모가 달려 있고 각각 청색, 흑색 소매의 창의에 전복을 입고 있다.⁴⁶⁾ 전복의 색상도 각각 흑색과 갈색 계열이다. 신분이나 역할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우나 하급차비는 아닌듯 하다.

興 앞부분의 인물은 더그레없이 전립·홍창의·청대의 모습이다.

8. 청모자·창의·더그레

의장대 뒤를 이은 호위대열 앞부분에는 인로가 8명씩 양쪽으로 나뉘어 맨 앞은 月刀, 그 다음에는 조총과 창을 든 모습으로 번갈아 서서 행진하고 있다.

복식은 모두 뒷 중심이 트여 있는 흑창의에 청 더그레·청모자·청대(그림 6/유형5, 그림 13-a)이나 『국조오례의』에는 창의에 巾으로 되어 있다. 더그레는 길이가 짧아 창 의자락이 많이 보이는 것이 출궁도 다른 인물의 더그레와 조금 다른 모습이다. 청모자는 턱에 끈으로 묶고 위로 반듯하게 올라간 것이 의장수의 피모자와 형태는 같으나 모자 위에 상모 장식이 늘어져 있다.

이러한 모습은 호위대 중간 중간에 보이는 황·청·흑 삼색기를 각각 든 인물(그림 6/유형7, 그림 13-b)에서도 보이며 다만 더그레는 창 의와 같은 길이이고 색상은 홍색이다.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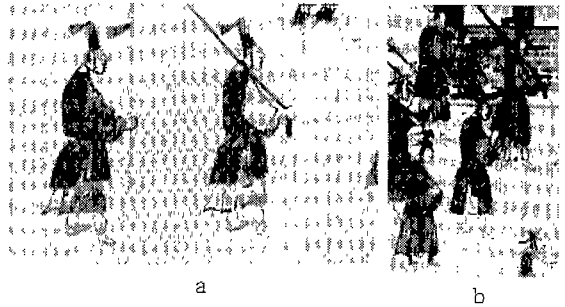


b



c

(그림 12) 전립·창의



(그림 13) 청모자·창의·더그레

IV. 결 론

6면으로 구성된 『출궁도』 화첩의 1면 출궁의에 서는 의장·호위대의 복식, 2·3·4·5·6면에서는 주로 행사 참여 인물의 복식을 살펴 볼 수 있었다. 본 화첩에 묘사된 등장 인물을 통해 무엇보다

45) 農家月令歌·漢陽歌, 『韓國古典文學大系』 7 (서울: 民衆書館), 1974 : 91.

46) 창 의는 소매가 비교적 넓게 그려졌지만 등다리라고도 볼 수 있으나 소매없는 포는 양옆의 트임이 보이지 않아 더그레보다는 전복으로 봄이 타당하다.

도 본 행사가 행하여진 순조대의 복식 제도 일면을 엿볼 수 있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행사 절차에 따른 복식의 착용

행사의 주인공인 왕세자는 실제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으나 관련 기록에는 행사마다 다른 복식이 거론되었다. 「출궁의」에는 공정책(관례 후에는 익선관)·곤룡포를 착용함으로 평상시 왕세자의 신분은, 일련의 입학의 과정인 문묘에 제사 드리는 「작헌례」 및 스승에게 입학을 허락받고 실제로 수업의 시작을 행하는 「왕복의」, 「수폐의」, 「입학의」에서는 학생복으로 청금복을 입음으로 학생으로의 신분임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문무백관의 축하를 받는 「수하의」에서는 원유관·강사포를 착용하여 위엄과 예의를 갖춘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왕세자의 스승인 박사 역시 입학 의례를 치루는 동안인 「왕복의」와 「수폐의」에는 공복을 입으며 당에 올라가 실제적인 수업을 시작하여 소학을 읽을 때에는 왕세자에게 가르치는 평상시 모습인 상복을 입는다.

(2) 조선 후기 공복 제도의 확인

백관의 관복제도가 조선 초기에 마련되어 시대에 따라 약간의 변화가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후기까지 시행되었다. 공복제도는 조선후기에 그 제도 자체가 헤이해져 관모인 복두를 포함한 공복제도가 어느 때부터인가 그 자취를 감추었다는 것이 이제까지의 일반적인 견해였다. 그러나 본 출궁도에서 박사가 복두와 홍포·야자대의 공복을 착용하고 있는 모습이 보임으로 공복제도가 임진난 이후 완전히 회복되지는 못하였지만 특별한 행사에는 착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제도의 간소화 및 복식 제도의 변모

조선후기는 제도의 재정비를 하는 시기였으며 의장제도에 있어서도 간소하게 되고 정비된 것을 알 수 있다. 『국조오례의』의 제도보다 의장대의 대열이 간소화되었으며, 동원된 인물의 수도 줄었

다. 복식은 대체로 국조오례의의 왕세자 의장에 기록된 것과는 다른 모습이였다. 의장수의 복색은 『국조오례의』에 그 배열이 정의, 홍의의 순서로 반복되었으나, 「출궁도」에서는 홍의로 통일되어 나타난다.

각 인물의 복식을 밝혀내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신분이나 역할을 나타내주는 의물이나 모습으로 구별이 애매한 별감, 사백, 인로는 주변 상황이나 배치 순서 등을 고려하여 그 복식을 알아 보았으며 조선 초기의 「국조오례의」의 제도와는 다른 변모된 복식제도였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입학 관계 행사에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거나 참관인으로서의 모습인 학생들은 기록에는 청금복을 착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도포를 착용하였다. 왕세자를 배위하거나 왕세자에게 축하하는 하례 의식에서 다수의 문무백관도 등장하는데 이들의 흑단령에는 문무의 구별없이 모두 새 한마리 문양의 흉배가 부착되어 있다.

(4) 다양한 복식제도 확인

옆 트임이나 소매 나비, 색상의 차이, 길이 등에 의한 다양한 포의 형태와 관모를 비롯한 기타 의물들의 형태를 명확히 구별할 수 있도록 표현되어 있어 복식을 비교적 자세하게 볼 수 있었다. 이 그림을 통해 조선 후기의 복제가 이제까지 밝혀진 것 보다 다양한 관모와 포제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수의 인물에게 착용된 다양한 직령이 보이는데 각각의 형태는 동일하나 색상이 다양했으며 더그레도 색상, 길이가 다양하게 나타난다.

관모도 지모, 피모자, 조건, 평정건 등 다양한 형태가 보이며 특히 착용 인물에 따라 포와 관모를 다양하게 조합하여 착용한 모습을 확인하였다.

이상에서 살펴 보았듯이 회화를 통한 복식사 연구를 함으로써 문헌만을 통한 연구에서 부족하였던 점을 다소 보충하거나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 유물이나 실증적인 기타 자료들을 통해 복식

사 연구가 보다 다양하고 심도있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본 연구에서 미흡하게 여겨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의 성과를 기대한다.

參考文獻

- 「世宗實錄」
- 「成宗實錄」
- 「中宗實錄」
- 「明宗實錄」
- 「顯宗實錄」
- 「純祖實錄」
- 「經國大典」
- 「國朝五禮儀」
- 「國祖五禮儀序例」
- 「國朝續五禮儀補序例」
- 「大東野承」
- 「燃藥室記述」
- 「藥學軌範」
- 「儀仗班次圖」
- 李翼, 「星湖僊說」
- 李晬光, 「芝峯類說」
- 梁大淵(편저), 「新編 太學志」, 서울 : 중앙논평신문사, 1960.
- 유송옥, 「朝鮮時代 儀軌圖의 服飾研究」,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미간행), 1986.
- _____, 「朝鮮王朝宮中儀軌服飾」, 서울 : 修學社, 1992.
- 柳喜卿, 「한국복식사연구」, 서울 : 梨花女子大學校 出版部, 1975.
- 李京子, 「韓國服飾史論」 서울 : 一志社, 1983.
- 李京子 · 弓民峯, 「朝鮮通信使 服飾의 一研究」, 「服飾」, 第7號, 韓國服飾學會, 1983.
- 이은주, 「한국전통복색에서의 청색과 흑색 : 청색의 범주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제18권 1호, 1994.
- 이은주 · 임재영 · 홍나영, 「王世子出宮圖」의 服飾研究 1, 「服飾」, 韓國服飾學會, 제28호, 1996.

ABSTRACT

The Study of Costumes in Wangséja Chulgunndo II —Centering Around Its Costumes—

As we analyzed the formalities of court dress during King Soonjo's rule through the characters depicted in 『Wangséja Chulgunndo』 (The Painting for a Crown Prince's Outgoing for Schooling to Sungkyunkwan), the results were as follows :

People wore their appropriate full dress according to the ceremonial procedures. In the case of a Crown Prince, normally he wore Gongjungchaek(a hat)(after the coming-of-age ceremony Iksunkwan) and Gonryongpo (imperial clothes) to show his status as a Crown Prince. He wore Chungkumbok(a coat) to indicate a Crown Prince as being a student. On an occasion of celebration, a Crown Prince wore Wonyugwan and Gangsapo to provide him with prestige and as a sign of respect for the occasion. The teacher of a Crown Prince also wore Gongbok and Sangbok according to the dress requirements of the ceremonies.

• We can confirm that the Gongbok system of all government officials had been maintained in the late Chosun dynasty.

• We know that the form of ceremonies became simplified in the late Chosun dynasty.

It was recorded that students had to wear Chungkumbok. But we knew from the painting that students actually wore Dopo(a traditional Korean coat).

• We knew through this painting that the court dress rules of the late Chosun dynasty varied than previously known.

As we concluded above, research on the history of costume by analyzing paintings both supplements our knowledge of the topic and

confirms the deficiency in the study of the history of costume based solely upon literature and books.